

올해 광주 음주사고로 8명 사망...전년 대비 2.6배 급증

최근 4년새 ‘음주 사고 사망자 최다’ 2020년 9명 육박
 매년 하루 평균 11건 꼴 단속 적발...“인식 전환 중요”

올해 광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363건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603명이 다쳤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8일 교통상에 돌진한 음주 차량에 치인 대리운전 기사 1명이 숨지기도 했다. 이로써 올해 지역 내 관련 음주 사고 사망자는 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1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532건)로 3명이 숨지고 902명이 다쳤다. 1년 사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2.6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앞서 2020년에는 음주 교통사고 602건이 발생, 9명이 숨지고 1065명이 다쳤다. 2019년에는 음주 사고 547건으로 5명이 사망, 994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매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도 꾸준히 40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 단속 실적은 ▲2019년 4063건 ▲2020년 4327건 ▲2021년 4155건 ▲2022년 1~10월 3866건 등이다. 해마다 광주에서 하루

평균 11건 꼴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셈이다.
 광주경찰도 음주운전 신고·사고 다발 지역과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매일 주·야간, 심야 시간대 단속을 펼치고 있다. 또 기동대와 암행 순찰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술자리가 늘면서 음주운전 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매일 수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경각심과 인식 전환”이라고 밝

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 판결도 엄격해지고 있다. 지난 7월 28일부터는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이 현행 최대 15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으로 대폭 상향되기도 했다”며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호기자

목포시의회 “시내버스 장기파업 관련 면허반납·대표 사퇴해야”

“경영책임 시와 시민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횡포 중단하라”



문치복 목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9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시내버스 장기파업과 관련, 이한철 대표의 사퇴와 면허반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목포시의회가 시내버스의 장기파업과 관련, 9일 시내버스 면허반납과 이한철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목포시의회 문치복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이날 오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표는 시내버스 면허를 즉각 반납하고, 시내버스를 목포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목포시내버스 노조는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8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특히 파업이 20일째를 넘기고 있으나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학생 등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목포시내버스 회사에는 올해도 118억원의 현재가 적자보전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지만 자구책도 없이 직원 체불임금 24억원에다 체납 가스요금 21억원 마저 요구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시의회는 “세금을 마저 용돈 타령하듯 요구하는 안하무인의 작태에 목포시민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면서 “이 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목포시내버스는 한 사람만의, 한 가족만의 회사 아니다”면서 “이 대표는 태원여객과 유진운수를 기반으로 가스충전소, 공업사, 차고지사업을 영위하며 자신의 부를 축적해왔으면서도 휴폐업이라는 수단으로 시민을 겁박하는 적반하장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회사의 경영 책임을 목포시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횡포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특단의 자구책 마련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또 “목포시는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추진하고, 협상 결렬에 따른 시내버스 회사의 휴·폐업까지 미리 대비해 사후 대책과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취재본부

학교비정규노조광주 25일 총파업...단일 임금기준 요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가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총파업을 예고했다.
 9일 학교비정규노조광주에 따르면 오는 25일 총파업 실행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2824명 중 2566명이 투표에 참여해 2215명(86.3%) 찬성으로 가결됐다.
 단체는 10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협상 결렬 과정들을 설명하고 추후 활동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단체는 비정규 종사자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학교의 임금체계가 달라 단일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며 교육부 등과 협상을 진행했다.
 또 근무경력이 길수록 정규직 대비 임금차별이 심화되고 복리후생수당도 법원과 인권의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해 개선을 요청했다.
 최근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급식노동자의 폐암 발생률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 마련 등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비정규노조광주 관계자는 “교육부 등과 6번의 실무교섭과 2번의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수용거부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만 임금이 오르는 것이 공정한 것이느냐는 조롱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식 노동자를 비롯해 교무·행정실무사, 시간강사들도 학교 단위로 계약이 진행돼 임금 차이가 크다”며 “교육부 차원의 임금체계 통일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섬 주민 건강 파수꾼...전남병원선, 올해 2만명 진료

13개 시·군 167개 섬 지역 의료복지·삶의 질 향상 기여

전남도가 의료시설이 없는 13개 시·군 167개 섬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병원선이 주민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올해 11월 현재 기준 섬 주민 1만9830명을 대

상으로 진료와 투약을 실시하고 2095명에게 각종 검사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중 건강 이상 질환자 850명은 전문치료병원으로 안내 조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병원선은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 1척씩 총 2척을 운영 중이다.

단순한 진료 개념에서 벗어나 치유 프로그램 도입한 결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의료 취약지인 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신 시설을 갖춘 병원선 건조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병원선 전남 511호 대체 선박으로 건조 중인 신규 친환경 병원선은 202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병원선은 섬 주민들의 질한 특성을 고려해 물리치료실을 신설하고 골밀도 측정 장비

와 생화학분석기 등 현대화 의료장비를 구축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 이송이 가능하도록 기존 속력보다 3노트 증가한 최고속력 17노트로 건조한다.
 병원선 전남 512호도 올 6월 2023년 국비로 설계비 2억원을 확보해 신규 선박 건조가 확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160억원을 들여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은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